

가공식품·외식·과일값 '안 오르게 없다'...허리 휘는 서민들

우유·맥주 이어 유제품·빵 등 도미노 인상 우려...외식 부담도 이어져 폭염·폭우에 생산량 줄어 과일·농산물값 치솟아 장바구니 부담 커져

지난달 광주와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3%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가공식품과 외식뿐 아니라 과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맥주와 우유 가격 인상으로 식료품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우유·맥주 가격 인상... '도미노 인상' 가능성= 9일 식품·주류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오는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맥주 제품 테라와 켈리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와 클라우드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는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된다.

주류에 앞서 이달 초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지난 1일 원유(原乳) 가격이 인상됐고 그 여파로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제품 업체들의 대표 흰 우유 제품은 편의점에서 900ml 기준으로 3000원을 넘게 됐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빙그레와 헤대 아이스크림은 지난 6일부터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해 우유값 인상 이후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빵, 과자 등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가격이 잇달아 오른 '밀크플레이션' 현상이 이번에도 재현될지 우려가 크다.

한 소비자단체는 최근 논평을 내고 "우유값 상승은 빵, 커피, 버터는 물론 시중 식품업계와 외식산업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며 "'도미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원인인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설탕·올리브유 가격 상승...외식 물가 부담 더 커지나=소비자들의 외식 부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지역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평균 680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5% 올랐다.

같은 기간 삼계탕은 1만54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6.5% 올랐고, 비빔밥은 8700원에서 9500원으로 9.2% 상승했다. 냉면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3.3% 올랐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설탕과 올리브유 가격이

오르고 국내 외식업체가 많이 이용하는 미국산 소고깃값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식 물가도 만만치 않게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국내 외식·식품업체들의 경우 대다수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외식 물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불안한 밀 수급도 언제든 외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과·배 가격 치솟아...장바구니 부담 더 키워=그간 가공식품과 외식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던 농산물 일부 제품 가격도 최근 급격히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사과(홍로·상품) 10kg 도매가격은 8만308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557원)의 3.12배로 치솟았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도 15kg당 4만707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461원)보다 비쌌다.

사과와 배는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잦은 강우 등으로 생산량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추석 선물, 제수 용품 수요도 급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와 배의 경우 10월 출하량이 각각 전년보다 -9%, -19%로 감소하는 만큼, 이번 달에도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단감도 이달 도매가격이 10kg당 3만3000~3만7000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달(2만6100원) 대비 26.4~4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이와 청양고추 등 일부 채소도 지난달 하순 잦은 비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시설채소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시설 내 온도·습도 관리 등 기술적 재배 기술을 중점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보이스피싱 해외송금 막았다

총 6건 유관부서와 공조 1억3300만원 피해 예방

광주은행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상한 금융거래를 잇따라 막아냈다.

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상한 해외송금 시도를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확인, 총 6건에 걸쳐 10만 1740달러(약 1억3300만원 상당)의 범죄시도를 예방했다.

광주은행 외환사무부는 해외송금 사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평소와 다른 금융거래 패턴을 확인하고 유관부서와 공조를 벌여 이 같은 성과를 올

렸다.

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금융사기범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2만5000달러(한화 3300만원 상당)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확인하고 그 즉시 해외은행에 협조를 요청, 전액 국내로 회수한 바 있다.

광주은행의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빛을 발한 셈이다. 광주은행은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 동구청과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 업무 협약을 맺고, 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금융앱(APP)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기법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장금이 결연식'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신속대응 및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제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에는 참가선수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무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 모니터링에 반영해 고객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권 전문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최근 광주전남기업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역 기업들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광산업진흥회, 유럽 ECOC서 64억 수출계약

90개국 330개 업체 참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전시회 'ECOC 2023'에 공동관을 구성해 수출상담을 지원, 476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ECOC 2023는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유럽 지역 최대의 광통신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90여개국 330개업체가 참가해 개최됐다.

진흥회는 이번 전시회에 국내 광통신 기업 14개사와 함께 공동관을 구성했다. 400Gbps CFP2 코히어런트 광 트랜시버, 광분배기(PLC Splitter) 등 글로벌 초격차 제품을 선보이는 등 국내 광통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럽 수출을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을 지원해 476만 달러(약 64억 원)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한 신한 네트워크는 FTTH용 광 아웃렛 모듈 및 Patch cord 제품을 통해 3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 엑스빔테크는 고신뢰성 확장용 광·광, 전복합 커넥터 제품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진흥회는 한국광기술원과 함께 영국의 광학 산업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영국 포토닉스 리더십 그룹(Photonics Leadership Group)과 광학 및 광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3자간 MOU를 체결하고 양국간 국제 공동 연구 및 국가별 광융합산업 중요 프로젝트 정책 공유 및 국제 협력 추진을 협약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총, 서경석 초청 1622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제자유총협회(회장 양진석·추호원 회장)는 지난 6일 개그맨 서경석을 초청해 162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포럼 강연자로 나선 서경석은 '작은 변화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을 풀어냈다. 서경석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경제분야 방송 MC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청, 건강, 경험, 배려, 도전, 창의적인 생각 등 6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오는 13일 이경전 경희대학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AI) 변천사'를 주제로 1623회 금요조찬포럼을 열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호남권 전문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 성료

무협, 광주·전남서 7년만에 개최 미주·중국 등 134건 수출 상담

광주·전남에서 7년 만에 '호남권 전문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호남 지역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전문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전문성 및 실적, 중소기업 제품 소싱 실적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500개의 민간 기업이다. 국내 제조기업 제품의 계약 대행, 구매 후 대행, 해외 마케팅 및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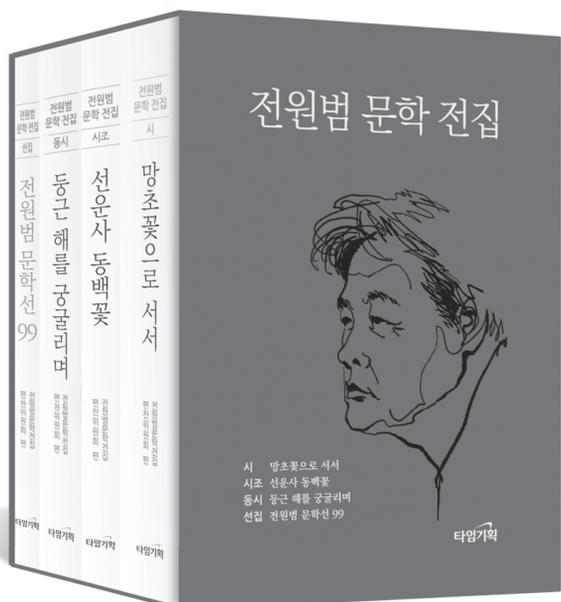
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을 대행하거나 지원한다.

상담회에 참여한 전문무역상사들은 철강·화학 제품·플라스틱·기계부품 등 산업재부터 농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소비재 분야를 미주, 중국, 유럽, 아시아 무역상들이 모여 호남권 제조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만나 134건의 활발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진형석 팀장은 "전문무역상사는 수출 인력과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도 해외시장 가능성을 탐색하고 해외 매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우리 지역 내수기업들에 수출 경험 축적과 해외 매출 확보의 기회를, 수출 초보기업에게는 수출선 다변화의 계기를 제공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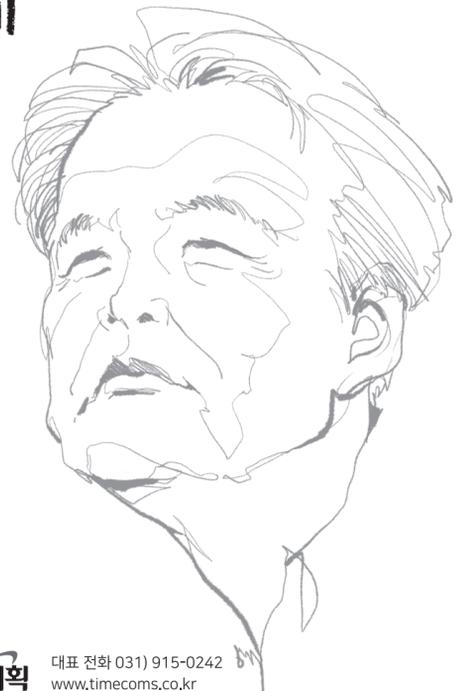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선집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